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7월 미시간대 미 소비자 심리 상승했다
- WSJ: 이코노미스트들, '미 침체 리스크 낮고, 성장 높아'
- WSJ: '연준 독립성 없으면 글로벌 경제에도 여파'
- YahooFinance: 연준 이사 Waller, 7월 금리 인하 강조로 연준 이견 노출
- Bloomberg: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미국 금융]

- Bloomberg: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크립토 시장 총 4조 달러 돌파
- Bloomberg: 미 국채 상승세 지속...연준 Waller 이사의 금리 인하 지지 후에
- Bloomberg: BofA, '올해 주식에 대한 글로벌 자금 흐름 급락'

[무역전쟁]

- Bloomberg: 미국,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반덤핑 관세 93.5% 부과

[주택]

- Bloomberg: 6월 미 주택 건설 반등...아파트 건설로
- CNBC: 미 주택 건설업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가격 인하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수수료 인상에 힘입어 매출 증가
- TechCrunch: 넷플릭스, 자사 콘텐츠에 생성형 AI 사용 시작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Rises as Inflation Expectations Improve

7월 미시간대 미 소비자 심리 상승했다

- 미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되면서 7월 초 미 소비자심리지수가 5개 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 미시간대의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7월 예비치 심리 지수는 전월의 60.7에서 61.8로 상승했다. 물론 이 수치는 작년 내내 보였던 수준보다 약한 수치다.
- 구체적으로 내년에 소비자들은 물가가 연 4.4% 상승할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전월의 5%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2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향후 5년에서 10년까지의 물가는 3.6%로 지난 5개월 새 가장 낮았다.
- 동시에 관세 우려는 경제 전망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 관계자는 비즈니스 여건, 노동 시장, 심지어 자신들의 재정 상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는 작년에 비해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WSJ: Economists' Outlook: Lower Recession Risk, More Growth 이코노미스트들, '미 침체 리스크 낮고, 성장 높아'

WSJ이 최근 이코노미스트들을 68명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7월 3일~8일까지) 올해 무역 정책이 성장 둔화와 고물가를 유발하리라는 당초 비관적인 입장에서 물러났다.

[향후 12개월 침체 가능성]

- 향후 12개월간 침체가 낮다는 응답률은 4월 45%에서 33%로 줄었다.

[2분기 미 GDP]

- 2분기에 미 GDP는 4월 답변에서 0.8%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는 2.2%로, 긍정적으로 예상했다. 일자리, 실업률, 인플레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 올해 3분기와 4분기에는 미미한 성장세를 예상했다. 당초 1% 미만에서 1% 약간 넘은 성장세를 예상했다.

WSJ 기사

WSJ: The Global Risks That Come With the Loss of an Independent Fed '연준 독립성 없으면 글로벌 경제에도 여파'

- 트럼프의 연준 파월 의장 해고 위협은 연준의 독립성이 없는 글로벌 경제에도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연준이 경고하기를 백악관이 통제하는 연준은 재정이 불확실할 경우 발 빠르고 신뢰성 있게 대응하기 힘들어 안정성이라는 역할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 즉, 연준이 흔들릴 경우 불확실성과 그 역할의 신뢰성이 해치게 될 수 있어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도 여파를 줄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우려하고 있다.

WSJ 기사

YahooFinance: Waller makes strongest call yet for rate cut in July, underscoring Fed divide 연준 이사 Waller, 7월 금리 인하 강조로 연준 이견 노출

- 연준 이사 Christopher Waller는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가 일시적이라며 7월 금리 인하를 강조하고 있어 연준 내부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 7월 연준 정례 회의는 28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 그는 구체적으로 연준의 금리는 현재의 4.25%-4.5%에서 3%로 인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125 또는 150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가 인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파월 의장의 후임자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만약 트럼프가 연준 의장직을 제의하면 수락하겠다며, “아직 트럼프로부터 그런 제의는 없다”고 말했다.

YahooFinance 기사

Bloomberg: What Happens If Trump Fires Fed Chair Jerome Powell? 트럼프가 파월을 해고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요구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 가능성에 “사기 혐의로 인해 “사임해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반박했다.

그동안 트럼프 측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잠재적 사유로 연준 본부 보수공사 사업 예산 초과 문제를 지목해왔다. 다만, 이러한 비용 초과가 실제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Bloomberg 번역 원문

[미국 금융]

Bloomberg: Crypto Market Value Tops \$4 Trillion as Stablecoin Bill Passes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크립토 시장 총 4조 달러 돌파

- 크립토 시장 가치가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돌파했다. 알트코인의 랠리와 미 의회가 관련 규정법을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Copper의 리서치 책임자인 Fadi Aboualfa는 비트코인이 향후에 15만 달러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올해 9월까지 14만 불, 10월 초에 15만 불로 상승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현재 옵션 시장도 향후 수주 안에 가격 상승 베팅이 늘어나고 있다고 Deribit 데이터는 밝히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reasuries Extend Advance After Fed's Waller Backs July Rate Cut

미 국채 상승세 지속... 연준 Waller 이사의 금리 인하 지지 후에

- 연준 이사인 Christopher Waller의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반복된 지지 입장 이후에 미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그는 노동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국채 금리는 하향세를 보이는 것.
- 그러나 그의 발언과 옵션 트레이더들이 그 같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헤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자 스왑 선물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BofA Says Share of US Stocks in Global Flows Has Plunged in 2025

BofA, “올해 주식에 대한 글로벌 자금 흐름 급락”

- Bank of America는 글로벌 주식 자금의 미국 점유율은 올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작년에는 전체 자금의 72%를 미국 시장이 점했으니 올해 현재까지는 거의 반 정도 미만으로 미국 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 이 은행의 전략가 Michael Hartnett는 현재 미 주식 시장은 버블 상태에 있으며 시장이 인플레 향후 상승과 국채 금리의 최고치 상승을 무시한다면 이는 버블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무역 전쟁]

Bloomberg: US to Impose 93.5% Anti-Dumping Levy on China Battery Material

미국, 중국산 배터리 소재에 반덤핑 관세 93.5% 부과

- 미국 상무부는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인 중국산 흑연이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한 후, 93.5%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원재료이다.
- 불만을 제기한 무역 단체인 American Active Anode Material Producers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가 기존 세율에 추가되어 실제 관세율은 160%가 된다.
- 컨설팅 회사 CRU의 배터리 부문 책임자 Sam Adham에 따르면, 160% 관세는 일반 전기차 배터리 셀에 킬로와트시당 7달러의 추가 비용이 붙는 것과 같다.
- Adham은 이번 관세가 관련 제조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한국 배터리 제조 업체들의 수익이 1-2분기에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IEA는 중국이 흑연 가공 능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Housing Starts Rebounded in June on Apartment Construction

6월 미 주택 건설 반등...아파트 건설로

- 6월 미국 주택 착공 건수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과도한 주택 재고와 수요 감소로 인해 전반적인 주택 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정부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다세대 주택 건설은 4.6% 증가해 연간 132만 채에 달했다. 5월에 10% 가량 감소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것이다.
- 그러나 신축 주택 건설은 17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재고를 정리하는 데에 집 중하면서 구매 및 투자 속도를 늦추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 육박해 주택 구매력은 감소하고 있다.
- 지난달 단독 주택 착공은 88만 3천 건으로 줄었는데, 이는 2023년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Pantheon Macroeconomics 수석 이코노미스트 Samuel Tombs는 “2025년 전체 실질 주택 투자는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작년의 4% 증가에 현저히 둔화한 수치”라 밝혔다.

Bloomberg 기사

CNBC: Homebuilders are slashing prices at the highest rate in 3 years 미 주택 건설 업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가격 인하

- 전국 주택 건설 업체들이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구매자들의 수요 약화를 겪고 있어,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 7월 건설업 심리 지수는 1포인트 상승한 33을 기록하며 소폭 개선 되었지만, 50 미만은 부정적인 심리로 간주된다. 현재까지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 건설업체의 38%가 7월에 가격을 인하했는데, 이는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가 이 지표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7월 평균 가격 인하율은 5%였다.
- NAHB 수석 이코노미스트 Robert Dietz는 “지속적인 주택 구매력 문제로 인해 2025년 단독 주택 착공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American Express Revenue Rises on Card Fee Growth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수수료 인상에 힘입어 매출 증가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수수료가 20% 급증하면서 2분기 매출이 증가해 28 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 이러한 매출은 카드 회원의 지출 및 순이자 수입이 증가하고 카드 수수료가 꾸준히 성장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됐다.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CEO Stephen Squeri는 2분기에 카드 회원들의 지출이 기록적으로 늘고,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강했다고 밝혔다.
- 이러한 실적을 기반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연간 매출 성장률을 8~10%로 전망했다.

WSJ 기사

TechCrunch: Netflix starts using GenAI in its shows and films

넷플릭스, 자사 콘텐츠에 생성형 AI 사용 시작

- 넷플릭스는 자사가 제작하는 영화와 드라마 등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최초 사례는 넷플릭스의 아르헨티나 드라마 'El Atonata'로, 해당 작품의 건물 봉과 장면에 AI로 생성한 영상이 사용됐다.
- 넷플릭스 공동 CEO Ted Sarandos는 AI를 사용하면 완성 속도가 10배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말하며 "AI 기반 제작 도구로 사전 시각화 및 고급 시각 효과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 공동 CEO Greg Peters는 넷플릭스가 개인 맞춤, 검색, 광고 등 콘텐츠 외 다른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올해 초 AI 기반 검색 기능을 출시했다.

TechCrunch 기사

[보고서]

中, 5 월 美국채 보유 2009 년 이후 최저...3 달 연속 감소 日·英은 5 개월 연속 늘려...캐나다 증가 폭 두드러져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가 5 월까지 3 개월 연속 감소, 2009 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17 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5 월 중국의 미 국채 보유 규모는 7 천 563 억 달러(약 1 천 52 조원)로, 3 월(7 천 654 억 달러·약 1 천 65 조원)과 4 월(7 천 572 억 달러·약 1 천 54 조원)에 이어 3 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